

책으로 가르치는 올바로 말하기

「한국어표준발음사전」 등 관련도서 잇달아 선보여

우리말의 '발음'에 관한 사전 몇 종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최근 몇달 사이 한꺼번에 발간되었다. 말의 뜻을 풀이한 국어사전은 그 종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지만 말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해놓은 사전은 우리의 경우 매우 드문 일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발음을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언어"란 달갑잖은 지적이 있듯 현재 국내에 발간돼 있는 발음사전은 지난 84년 남광우·이철수·유만근 교수가 공동집필한 「한국어표준발음사전」(정신문화연구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전국어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던 이은정씨가 지난 연말 펴낸 「우리말 발음사전」(백산출판사)은 88년 국내 처음으로 '표준발음법'이 고시되었음에도 이의 해석·적용이 사전마다,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혼돈상황'에서 표준 발음법에 철저히 의거해 바른소리의 잣대를 제시한다.

몇가지 발음의 예를 들어보면, '씨어' '희망'과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ㄷ'는 [ㄷ]로 발음하는데, 조사 '의'는 [의] 발음도 가능하며, 흔히 소홀히 여기기 쉬운 '소리의 길이'의 경우 '봐' '돼' '뒤'와 같이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음절로 축약된 말의 경우 [봐:] [돼:] [뒤:]와 같이 긴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받침의 발음은 좀더 까다롭다. 읍고 [읍꼬] 깎아[까까] 만형[마텝],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로 시작하는 '밭 아래' '늪 앞'은 [바다래] [느뵤]이지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단따/마신타] [머뵤따/머신타]로 둘 다 가능하다.

현행 '표준발음법'에도 다소간의 문제있어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① 사이시옷의 발음 ② '외'의 2중모음 발음 등이다. 현행 '표준발음법'은 [원손]과 복모음 [웬손]의 발음 모두를 표준 발음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이은정씨는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 이 사전에서 이씨는 '원손' '피다' 등의 발음을 모두 [외]와 [외] 등 단모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의미가 '원손'과 '웬 손'이 엄연히 다른데 모두 가능하다는 표준발음법은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KBS나온서 실장을 거쳐 현재 수원대 국

발음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맞춤법

못지않게 낱말들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느냐는 발음법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말이

소리글자라는 이유 하나에 기대어

소홀히 해온 면이 없지 않다. 최근들어

발음사전 몇종이 앞서거나

뒤서거나하며 한꺼번에 출간, 바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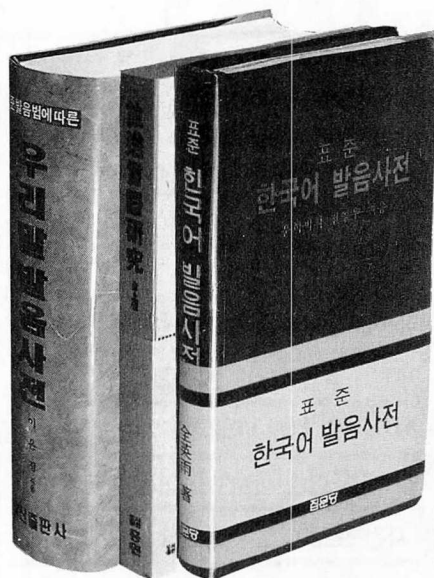
말소리에 대한 필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국문과 교수로 있는 전영우씨가 최근 내놓은 「표준한국어발음사전」(집문당)은 84년 아나운서들의 방송언어 사용에 지침이 되기위해 한국방송사업단에서 발간한 「KBS표준한국어 발음사전」을 수정 증보한 것. 8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표준발음법의 원칙에 따라 그에 의거한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 되기, 소리의 첨가 등 예시된 실례에 따라 새롭게 정리했다. '발음'이라는 것이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그때그때 참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표제어 1만개를 선별하여 등재시키고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었다. 영한사전에서 흔히 볼 수 있듯 국제음성기호(IPA) 발음기호로 표기했다.

「표준한국어발음사전」의 경우도 그렇지만 발음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쪽은 국어학자들보다 방송아나운서들인 것 같다. 오는 3월 출간될 「표준한국어발음대사전」(김석득, 이현복, 유재원 감수, 어문각)은 「방송언어순화자료집」 「한국어연구논문」 등과 같은 발음관련 책자를 발간, 혼란한 언어생활에 쫓겨 세우는 일을 담당해왔던 KBS 한국어연구회(회장 원창호)가 89년부터 작업에 착수해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전은 방송국 내에서 펴낸 만큼 방송뉴스에 자주 쓰이는 시사성있는 낱말까지 수록, 모두 7만여개의 낱말을 표제어로 등재시킨 대규모인데, 기재사항은 표제어/한글발음표기/국제음성기호(IPA) 발음표기/한자의 순서이다. 이 사전은 발음에서 맞춤법을 거슬러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동음이의어 수, 음소별·음절별·변이음별 절대찾기수,



상대찾기수 등 발음사전만이 가질 수 있는 통계들도 아울러 제시, 사전의 학문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KBS나온서 김상준씨가 우리말의 음성표현의 이론과 실재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있게 정리한 「放送言語研究」(홍원)는 비록 발음사전은 아니지만 바른 말소리의 구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앞서 소개한 발음사전들과 동일선상에 놓인다 하겠다.

말의 질서에 대한 필요 반증

표준말을 제정함에 있어 낱말을 어떻게 적느냐 하는 맞춤법 못지않게 낱말들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느냐는 발음법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말이 소리글자라는 이유 하나에 기대어 소홀히 해온 면이 없지 않다. 하나밖에 없던 발음사전이 서너종으로 급증한 데서 말의 질서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 정혜옥 기자

서열화한 세계의 역사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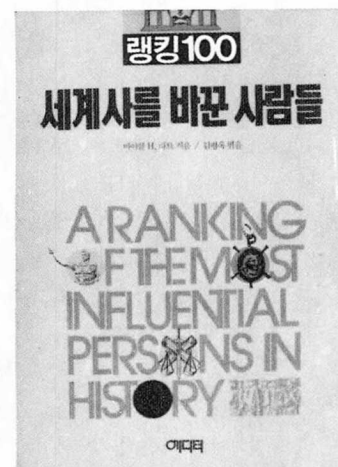
「세계사를 뒤바꾼 사람들」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계사의 큰 물줄기를 뒤바꿔 놓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쉽게 떠오르는데로 예수? 아인슈타인? 피테? 마르크스?

아니라고 한다. 마호메트가 그 첫번째이고 그 다음이 뉴턴, 예수 크리스티이다. 1백번째쯤 가서 피카소, 마하비라, 보어가 있다.

이 세계사를 바꾼 1백명 안에 르네상스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역시 위대한 음악가인 모차르트 같은 이는 빠져있다.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놀라게 하는 예수가 아닌 마호메트의 1위 등극은 "예수가 크리스티교를 창시할 때 예수 개인의 영향력보다도 마호메트가 회교를 만들어낼 때의 개인적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H. 하트가 쓴 「세계사를 뒤바꾼 사람들」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위대하다'고 여기고서 떠올리는 '세계사를 바꿀 만한' 인물의 순서를 철저히 '영향력'의 측면에서 순위를 다시 매김으로써 재미있는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스탈



린과 같이 위대함과 상관없는 냉혹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강력했던 영향력으로 인해 63번째에 올라 있다.

이 인물들의 출신지나 살았던 시대를 보면 유럽사람이 7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원전 3~6세기 사이의 인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자·발명자가 37명, 정치·군사지도자가 30명, 철학자 14명, 종교지도자 11명 등이다.

에디터 / A5신 / 510면 / 7500원